

**사랑의 1004 운동**  
동기증 모습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목)가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과 함께 추진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들이 돈을 모아 나누는 '사랑의 1004 운동'도 늘리고 지역 농가의 쌀 판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 계획이다.

농협임직원 쌀 구입 행사 모습.

구성된 임직원 성금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우리 지역 어려운 세대에 의료비로 지원된다. 또 '축하화분 나눔 경매' 행사를 통해 매년 인사철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된 화분을 직원들에게 판매해 '사랑의 1004 운동' 재원을 마련해 오고 있다. 축하화분 경매대금으로 마련된 모금액은 올 2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지역 어려운 세대에 의료비로 지원된다.

이흥목 본부장은 "올해도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농협임직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이 잘사는 농협 운영=농협광주본부는 지역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생산한 쌀을 파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쌀 팔기 운동 선포식을 한데 이어 같은 달 7일에는 발대식을 하기도 했다. 전직원이 참여한 지역 생산 쌀 판매 운동을 통해 올해 현재 지난해 보다 쌀 판매실적이 270%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올해를 '광주RPC 흑자 전환 원년'으로 삼고 농업별 30억 무이자자금 지원도 하고 있다.

팔리는 쌀 재배를 위해서 올해 4개구 지자체와 연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600ha를 조성해 10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554개교 26만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 2700t을 공급할 방침이다.

농협광주본부가 벼 직파재배를 늘리는 이유도 지역 농가의 쌀을 더욱 많이 판매하기 위함이다. 농협광주본부는 지난 13일 광산구 임곡동에서 벼 직파재배 시연회를 시작으로 올해 관내 5개 농협과 함께 벼 직파재배 면적을 100ha로 늘릴 계획이다.

이흥목 본부장은 "광주지역 한 업체의 벼 직파 자동화기기를 사용해 재배를 해 보니 생산비의 30%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더욱 많은 농가에서 생산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벼 직파 사업을 늘리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농협 3대 시책 성과**

**信 愛 富**

무인로컬푸드매장 운영 순조... 점포 확대  
1004 기부운동... 소외계층에 3억7백만원 성금  
지역 쌀 팔기·생산비 절감 운동

◇'믿음 경영' 성과='심는 대로 거둔다'는 땅의 이치를 따라서일까. 농협광주본부의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이 주목받고 있다. 관리하는 사람 한 명 없이도 매출이 쑥쑥 오르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시민의식'을 심어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농협광주본부는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이 늘고 있고, 분실 농산물도 적어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동농협은 지난해 5월 19일 광산구청 1층 로비에 처음으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열었다. 이 로컬푸드직매장은 관리하는 직원은 없지만 없어지는 상품이 거의 없었다. 이에 같은 해 6월 24일에는 수완동주민센터와 지하철 평동역사, 같은 해 9월 17일 첨단1동주민센터, 신창동주민센터에 잇따라 무인 점포를 내게 됐다.

매출도 늘었다. 매장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광산구청 하루 매출 40만원(이하 평균), 누적매출액 9578만원 ▲수완동주민센터 하루 29만원, 누적 6467만원 ▲평동역사 19만원, 누적 4697만원 ▲첨단1동주민센터 6만원, 누적 88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NH농협은행 첨단지점에서도 하루 매출 52만원, 누적 519만원을 기록해 무인 매장에서만 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농협광주본부는 광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무인 로컬푸드직매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협에 일군 '천사의 사랑'=농협광주본부에는 날개 없는 천사들이 있다. 월급의 일부를 모아 1004만원이 되면 사회에 기부하는 '1004 운동'을 펼치는 직원들이 그들이다.

농협광주본부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주위 소외된 계층에게 수술비, 치료비 등으로 지금까지 431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에도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 관내 농협 임직원이 치료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모금한 33번째 1004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농협광주본부 이흥목 본부장이 지난 13일 광산구 임곡동 한 논에서 직접 벼직파 기계에 올라 타 무논점파 직파 재배를 시연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노동력·생산비 30% 절감 벼 직파재배 뜬다**  
농협전남본부, 임곡서 시연회  
시범사업 면적 624ha로 확대

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가 뜨고 있다.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지난 13일 임곡농협(조합장 기재만)이 관할하는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한 들녘에서 벼농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 확대 시연회'를 했다.

벼 무논점파 직파재배는 못자리를 하지 않고 범서를 직접 파종해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불리며, 기존의 육묘와 이앙 과정을 생략해 농가 노동력과 생산비를 30% 이상 줄이는 획기적인 벼농사 재배법이다.

이 날 시연회에 참석한 기재만 조합장은 "벼직파재배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곡 관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흥목 본부장은 "쌀 판매와 개방, FTA 등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한 생산비용 절감이 우리 농업 농촌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도 19일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들녘에서 벼 직파재배 시연회를 열고 금년 시범사업 면적을 624ha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농협의 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3년차 추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나주 동강농협 등 20개 300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옥상 방수 단열 한번시공으로 끝!**  
강철로 만든 스틸단열방수가 정답

하루종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옥상 단열과 방수는 중요한 건물관리입니다. 동파, 누수, 균열방지에는 스틸단열방수 판넬이 가장 적합합니다. 칠하고 붙이고 씌우고 다해 봐도 오래 가지 않는 물새는 옥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고민 단열방수판넬 시공 한번으로 끝!

부식, 미끄러짐, 물샘틀 없습니다. 페인트식 바닥 부착형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개발한 스틸단열 방수 판넬은 불소수지에 근접하는 내후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강철판넬이며 옥상 바닥이 패이고, 균열되어 있어도 시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영구적 신공법 특허방수입니다.**

지역 대리점 모집  
자재구입 보증금 2천만원 가능하신분

1599-7652  
NAVER 연합건설@ 검색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